

# “올 여름엔 냉방비 폭탄”...자영업자 ‘시름’

### 냉방기 본격 가동 앞두고 전기·가스료 인상에 벌써부터 걱정 “인상 취지 공감하지만 부담 가중...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오늘 날씨가 벌써 32도나 됩니다. 예년보다 일찍 에어컨을 가동하게 됐는데, 전기요금이 또다시 인상되니 부담이 크네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얼마나 적혀 있을지 벌써 겁이 납니다.”

영광군 영광읍에서 약 240㎡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하루 전인 15일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씨의 매장 내 컴퓨터는 65대로 수십대의 컴퓨터가 가동되는 PC방은 매장 내부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는 날씨가 비교적 일찍 더워지면서 이달 초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만 15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달은 에어컨 가동이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적어도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66)씨의 고민도 비슷하다. 박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이어 올 여름엔 ‘냉방비 폭탄’을 맞을 판이다”라며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일제히 인

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불경기 속에 어떤 가동이 본격화되는 여름을 앞두고 이뤄진 요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을 kWh당 8원을 인상키로 했다. 이년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kWh당 146.6원에서 kWh당 154.6원으로 올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급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 (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은 5.7%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3차례에 이어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연이어 인상됐다. 자영업자들은 좀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연이어 오르게 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2)씨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졸금리 상환 압박이 상당하다. 인건비와 배달업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가 요금인상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아 그 불만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전기요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발표하긴 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이의 냉방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모든 소상공인에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출 기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은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한 데다 전기·가스료 인상도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오는 9월 종료되는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은행, 전국체전 후원금 8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5일 전남도청을 찾아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기탁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후원금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금, 체육인재 육성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또 오는 7월부터 광주은행 ATM기(현금인출기)와 영업점 창구 모니터를 활용해 전국체육대회를 집중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국체전 성공개최에 힘을 보낼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2008년 여수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이후 15년만에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에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장학금 및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49개 종목에 3만여명이 참여하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31개 종목에 9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KT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돕는다”

### 안정적 통신 인프라 구축 주요 전송시설 보안 강화

KT는 오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통신·방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통신도 또한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통신회선의 경우 발사체의 비행위치, 비행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데, 나로우주센터는 누리호 발사를 위해 KT 통신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2차 발사 시점까지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강화했다. 발사 당일 추적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일부 단일 전송구간은 이원화했다. 또 제주주요 전송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에는 백업 무선통신망(마이크로웨이브)을 추가로 개통했다.

KT는 올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지난 3월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제주 추적소 회선과 국제회선 전송 품질을 측정했다.

KT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을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방송망 구축에도 만



KT 직원들이 누리호 발사 순간을 전 세계로 원활하게 중계하기 위한 누리호 발사 통신지원센터를 나로우주센터 광장에 구축하고 방송회선을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전을 기하고 있다. 주 무대인 우주과학관을 비롯해 발사제동, 미디어센터, 남도방파제, 우주전망대, 연구동 등 6개소에 방송장비를 구축했다. 총 40회선의 방송회선을 구성해 지상파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지원한다.

지정용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전무는 “KT는 완벽한 통신·방송 인프라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술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국세청-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운영석)은 16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박인철) 임원과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의 초청을 받아 추진됐다. 간담회에서 운영석 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부담 완

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모범납세자 선발 요건 설정 및 수상자 확대 요청,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상향, ESG경영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운영석 청장은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 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기아, 대형 전기차 통했다

### ‘더 기아 EV9’ 사전계약 1만대 돌파

영업일 8일만에 1만367대 접수...에어·어스·GT-line 트림 진행

기아는 ‘더 기아(The Kia) EV9’의 사전계약이 1만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 EV9는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을 갖췄다. 또 99.8kWh 대용량 배터리 기반 50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으며 최고 수준의 신기술도 대거 적용됐다.

지난 3일 시작한 EV9의 사전계약은 기본모델(에어·어스 트림)과 GT-line으로 진행했는데 영업일 8일만인 지난 15일 마감기준 1만367대가 접수됐다.

기아 전동화 라인업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EV9은 K9(2012년, 15영업일 3201대)·모하비(2019년 11영업일 7137대) 등 기아의 역대 플래그십 차종의 최종 사전계약 대수를 훌쩍 넘어섰다.

EV9을 사전계약한 고객의 86%는 ▲듀얼 칼라 엠버전트 라이트 ▲1열 릴랙스 콤포트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춘 기본모델의 ‘어스’ 트림과 ▲전용 디자인 사양 ▲부스트 ▲스몰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등 고급감이 높은 사양이 기본 적용된 GT-line을 선택했다.

기아는 이와 같은 결과가 기존 플래그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급 트림 선호 경향이 반영됐다고 보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래그십 EV9이 프리미엄 차량 구매를 기다리던 고객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10 에어백 등 상품성이 뛰어난 기본 트림 ‘에어’를 선택한 고객의 67%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01km를 주행할 수 있는 2WD 구동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은 전체 계약의 60%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중 40대 40%, 30대 20% 등 EV9에 적용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24(+0.89)
↑ 코스닥	816.75(+2.22)
↓ 금리(국고채 3년)	3.257(-0.022)
↑ 환율(USD)	1338.60(+1.60)

##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전’으로 확대

현재 ‘15일 이전’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20일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세무조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내용의 ‘사전통지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인 사업자,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사전통지 기간은 지난 2007년(7~10일), 2018년

(10~15일) 각각 확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 기간을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한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 세무조사 때 시범 운영한 뒤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